

자연 - 연기 양립 가능하다

서대원 교수 발표

자연(自然)과 연기(緣起)는 양립이 가능한가? 특히 중국사상사상에서 불변의 공극적 본체이며, 만물의 통일자로 여겨지는 자연설과 그 양립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불교의 연기설이 상호 융합되어 양립이 가능한 사상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위진남북조시대의 사상가들이 왕필과 광상의 기초 위에 주세경, 석진관의 논란 과정을 거쳐 심약이 양자를 융합시킨 자연연기설을 완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심약의 자연연기설의 사유구조는 위대대 불교사상가 축도생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논문이 발표돼 주목 받고 있다.

한국도가학회에서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있는 서대원씨가 지난 6월 11일 발표된 이 논문에 따르면 축도생에 의해 자연과 연기(현상)의 양립이 가능해졌다고 말한다. 발표자인 서대원씨는 위진남북조시대에 풍미했던 자연과 연기의

연기는 인연에 의해 드러나

도생 “불성이 외부조건에 감응 현상 이류”

심약 “인(자연)은 緣따라 천변만화 표출”

양립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축도생의 출현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으며, 본체와 현상의 융합이란 차원에서 많은 사상가들의 관심 영역이었다고 진단했다. 이 시기의 사유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홍명집>에 나오는 주세경과 석진관의 논란, 그리고 심약에 의해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렇지만 심약이 양자를 통일한 사상가로 규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며, 그 전에 축도생이라는 사상가를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심약(沈約) 441-513은 인연관을 정리하면서 “인간에게는 인연과 비인연의 요

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인연은 연기이며, 비인연은 자연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은 비연기적이고, 인연은 비자연적인 요소이다. 심약은 이 둘을 통합하여 자연은 원인이 되며, 이 원인이 조건(緣)에 따라 천변만화하는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축도생은 일찍이 불성을 자연 내지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의 본유(本有)로 파악했다. 따라서 축도생은 다름과 같이 언급한다. “불성은 아무 이유 없이 이루어져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에는 이것이 깰 수 없다.” 그

렇지만 이 불성은 외부조건에 감응하게 되는데 이것이 현상이라는 것이다. 결국 도생은 공극적 본질과 현상이 어떻게 상호 감응하며, 통일될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무아사상은 대승불교의 전개와 함께 공무자성을 강조하는 반아사상으로 발전한다. 공무자성이란 연기설에 입각하여 공극적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중국 사상사에서 인도불교의 아트만과 같은 개념이 자연이다. 자연이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겨났으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도라고도 한다. 따라서 자연과 자생(自生), 道는 동일한 개념의 다른 표현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념 역시 불교의 연기사상과는 상충된다. 불변의 실체를 인정한다면 연기설은 설 땅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도생과 심약에 의해 양자는 양립이 가능해진다.

권형진 기자 jimny@buddhapia.com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예술로 승화된 선·교종 만남

송광사 하면 곧바로 승보(僧寶)를 떠올린다. 이 절은 부처님이나 경전보다는 스님들로 이루어진 사찰이다. 고려 중기 보조국사 지눌부터 시작하여 200여 년에 걸쳐 쌓은 16국사들의 역사는 송광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승보사찰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물론 이분들 외에도 송광사에는 이름난 고승들이 많이 배출되었지만, 송광사의 근간이자 중심을 이룬 이들은 16국사인 것이다.

지눌(智訥)은 고려 중기에 활동한 선사이다. 당시는 불교계가 선종과 교종으로 갈라져 극단적으로 대립하던 때였다.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한 이가 바로 보조국사 지눌이다. 선종과 교종의 조화를 중요시한 지눌의 깨우침은 송광사의 가람배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중앙의 대웅전을 중심으로 그 뒤에 선종의 공간을 배치하였다. 축대를 쌓고 그것도 높은 담장으로 둘러쌓아 폐쇄적 공간을 마련한 것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공간과 분명하게 구분 짓기 위한 것이다. 그만큼 이 구역은 송광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보물 263호로 지정된 하사당은 조선초기의 작고 간소한 살림집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선방이다. 이 건물은 소박한 외양을 띠고 있지만 그곳에서는 선(禪)적인 격조가 피어나고 있다. 선

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건물 하나가 소리 없이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 구역에는 16국사를 모신 영당도 있다.

대웅전의 왼쪽의 구역은 스님들이 공부하는 강당과 생활하는 요사채가 있다. 대웅전 뒤가 선종의 공간이라면 대웅전 왼쪽의 교종의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선방과 강당들로 대웅전을 가득 둘러싸고 있어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승보사찰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사찰의 배치가 종축이 아니라 횡축으로 뻗어있다. 우회각을 건너 가면 종루를 지나 바로 대웅전의 마당에 이르게 된다. 다른 큰 절에 비하여 대웅전에 이르는 길이 유난히 짧다. 반면에 그 좌우



송광사 우회각. 송광사에서 가장 예술적 위치가 가득한 곳이다.

지눌, 송광사가람배치에 선종·교종 융합

대웅전 일대 예배공간, 왼쪽 강당·요사채

말씀이다. 선종과 교종의 접점을 찾은 이 깨우침은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한국불교사에 서 한 획을 긋는 지침이 되었다. 송광사는 바로 지눌이 선종과 교종을 아우른 실천의 장인 것이다. 이러한 지눌의 뜻은 후세에 이어져 15국사를 연속하여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선종과 교종의 조화를 중요시한 지눌의 깨우침은 송광사의 가람배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중앙의 대웅전을 중심으로 그 뒤에 선종의 공간을 배치하였다. 축대를 쌓고 그것도 높은 담장으로 둘러쌓아 폐쇄적 공간을 마련한 것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공간과 분명하게 구분 짓기 위한 것이다. 그만큼 이 구역은 송광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보물 263호로 지정된 하사당은 조선초기의 작고 간소한 살림집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선방이다. 이 건물은 소박한 외양을 띠고 있지만 그곳에서는 선(禪)적인 격조가 피어나고 있다. 선

의 폭은 매우 길게 전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송광사의 운치는 입구에서 맛볼 수 있다. 키가 우뚝한 촉백나무 숲을 지나 일주문을 들어서면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운 만큼 아름다운 정원이 전개된다. 조계산의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계곡을 따라 가다가 왼쪽으로 무지개다리와 지붕이 있는 전각인 우회각을 통해 건너게 되어 있다. 이 절경은 많은 시인묵객의 마음을 움직여 우회각 전경에 많은 시문의 환란을 남겼다. 또한 이 다리를 건너면 좌우에 누각이 있는데 왼쪽에는 물과 다리의 경치를 감상하게 꾸민 임경당이 있고 오른쪽에는 목련극과 팔상극을 공연할 수 있는 침계루가 있다. 이 구역만큼 예술적 향기로 가득한 사찰도 드물 것이다. 지눌이 지향한 선종과 교종의 만남은 이러한 예술적 향기와 운치를 통해서 하나로 융화된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불교연구원 ‘불교연구학회’ 창립

27일 창립기념세미나 ‘보현학술상’ 도 제정



한국 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사진)은 불교전문 학술모임인 ‘불교연구학회’를 창립하고 27일 오후 3시 연구원 법당에서 창립식 및 기념 학술 발표회를 개최한다.

불교연구학회는 앞으로 분기별 한 차례의 연구발표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젊은 신진학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해나

갈 계획이다. 이미 지난 3월 불교연구학회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보현장학회를 설립했으며 창립 30주년이 되는 내년 4월에는 우수 논문을 선정해 ‘보현학술상’도 시상한다. 이사장 정병조 교수(동국대)는 “그 동안 짧고 유능한 재목을 키우고 다음 인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늘 있었다”며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해석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불교 응용학의 산실로 키워겠다”고 밝혔다.



고달사지의 중심 사역으로 보이는 나팔여초의 대형 건물터(사진 위쪽)와 건물터 아래 토층에서 발견된 8~9세기 인화문 토기 조각(오른쪽).

여주 고달사 창건 의문 풀리나

8~9세기 토기 출토 ... 기록 뒷받침

기전문화재연구원 발굴

여주 고달사지(사적 382호)에서 8~9세기 유물이 출토돼 창건 당시 가람에 대한 귀중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원장 장경호)은 13일 지난해 8월부터 4차 발굴을 한 결과 고달사터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터로 추정되는 나팔여초의 대형 장방형 건물터(전면 길이 42m) 아래 토층에서 8~9세기 인화문 토기 조각이 소량 출토됐다고 밝혔다.

조사1팀 소장팀 팀장은 “8세기 창건했다는 문헌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서”라며 “대형 장방형 건물터가 있는 동쪽 아래 지역이 중심 사역이고, 사체가 커지면서 서쪽인 산 위 방향으로 사적이 확장돼 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달사는 신라 경덕왕 23년(764) 창건돼 9세기 때 한 차례 중창됐다가 고려 광종(949~975 재위) 이후 대가람으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난 3차례 발굴조사에서는 10세기 이후 건물터만 발견됐다.

불교심리학 개념 정립

선상담연구원 세미나

“불교 상담을 하려면 불교심리학의 개념부터 정립해야죠.” 선상담연구원(원장 인경)이 28일 ‘상좌부 아비담마의 이해’라는 주제로 첫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원장 인경 스님은 “불교, 특히 초기불교의 명상과 선 불교를 서구 상담심리학과 접목시킨

‘불교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대부분 이론적 바탕은 서구 심리학”이라며 “불교 상담을 위해서는 ‘불교심리학’을 먼저 확정해야 하고 이번 학술발표회는 이를 위한 첫 번째 시도”라고 말했다. 인승택(동국대)씨와 이영진(동국대)씨가 상좌부 아비담마에서의 마음의 인식작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선상담연구원은 불교의 수행체계와 현대 심리학을 접목해 불교적 상담 기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해 9월 문을 열었다.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충남노산 • 법당: 20평 • 요사: 100평 • 부지: 713평 • 가액: 3억5천 • 위치: 대구 • 법당: 30평 • 요사: 40평 • 부지: 420평 • 가액: 7억5천 • 위치: 경남 • 법당: 27평 • 요사: 27평 • 부지: 555평 • 가액: 3억 <p>* 전국 사찰, 포교당 다양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선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p>	<h3>천도재, 정안식, 각종 행사에 임시로</h3> <p>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p> <p>055) 387-0361 016) 428-6665</p>	<h3>포교원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광진구 5거리 코너 • 평수: 75평, 3층 • 보증금 2천5백만원, 월 120만원 • 보종금 + 시설비: 6천5백만원 * 삼존불 + 약사여래 + 지장보살 10년이상 포교지 • 법당, 요사채, 불리형 • 도시가스 시설완비 <p>02)444-3957</p>	<h3>사찰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월역에서 3분거리 • 부지: 약 320평 • 평수: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주차 10대 • 가액: 2억 5천만원 <p>011)9024-4843 02)3391-4845</p>	<h3>포교당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인련동 서원시장 인접 APT단지 밑지역 • 4층 건물중 2층 • 가액: 5천 2백만원(시설 깨끗함) <p>051)524-8108 011)597-6700</p>	<h3>민속불교백화점 (계인평도 모집입니다)</h3> <p>금불상, 목불상, 옥불상, 금탱화, 서적 승복, 신복, 유기, 도자기, 농악복입절 북, 장구, 재주, 매구, 민속국악기일괄</p> <p>전국 어디든 체인점 개설을 지원합니다. 노후 생활에 최고의 사업을 원하십니까? 년 1조원시장에 달하는 불교 / 무속용품 체인점 사업분야에 문의바랍니다.</p> <p>전화 : 031)480-4848, 031)417-4848 팩스 : 031)480-8549</p>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강남 • 부지: 1000평 • 법당: 80평 • 요사: 200평 • 양도가: 40억 • 주차시설 및 산세좋음 • 위치: 강원도 문막 • 부지: 500평 • 법당: 30평 • 요사: 70평 • 양도가: 4억 • 계곡 및 산세좋음 <p>한국최고의 사찰건설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양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p>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구새내서중점 뒤에는산 • 대지: 500평 • 법당, 찜질방 1개, 방 2개 • 가액: 1천 5백만원 <p>017)854-2428</p>	<h3>포교원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성남 남한산성전철역부근 3층 건물중 2층 • 법당 20평, 방1, 도시가스 • 삼존불, 부처님 3분, 후불, 신중 •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7백만원 <p>031)732-0471 016)265-2762</p>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내 위치좋은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특징: 잘 지은 절 • 가액: 3억 3천만원 <p>011)226-2880</p>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남해 창선 • 대지: 500평 • 법당 1, 요사채 1 • 가액: 8천만원 <p>055)854-2195 055)854-6365 011)579-4166</p>	<h3>스님·불자님 고민 삼환이 해결해 드립니다</h3> <p>임법당, 요사채, 신복 및 보수, 조립식 무속건물 신복, 동기와, 토기와, 비새고, 허물어진 토굴, 칼라성형관으로 교체, 70년 보양, A/S 확실</p> <p>전국 어느 곳이나 무료견정 시공 상담.</p> <p>삼환 주택 개량 공사 경북 사무소 : 054-292-7613 울산 사무소 : 052-262-0601 휴대폰 : 011-9307-0609</p>
<h3>秘傳 大六壬 역학 전수반 모집</h3> <p>인간사 길흉 적중률에서 神의 경지인 역학위의 최고 역학! 미국 하버드대학 동양학 연구소에서도 연구중인 大六壬 집중 책임지도(기초에서 고급할까지)</p> <h3>고려유림학회</h3> <p>서울지회: 02)826-0179 대구지회: 011-530-6652 대전지회: 042)525-3880 (011-558-5496)</p> <p>인천(부전)지회: 032)655-7853 부산지회: 051)783-6049 각 지역은 가까운지회에 연락요망</p>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산정군 황매산 서편 • 부지: 약 2000평 • 법당: 30평, 2만평 • 건물: 단청한 법당 30평, 요사채 2중, 그의 • 특징: 지리산 천왕봉 안대 동양화같은 최고명당 비구니선원 적합 • 가액: 2억 7천만원 <p>011)531-1334</p>	<h3>사찰(중)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울주군 상북면 연양터미널에서 7분거리 • 대지 181평, 농지 200평, 총 400평 • 임법당 30평, 요사채 20평 1동 • 건물 완공 2년 • 특징: 수려한 야산에 정남향 8m도로길, 교통 편리함 • 가액: 2억 6천만원 • 불교집기 및 생활집기 포함 <p>011)9544-0997</p>	<h3>포교당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금정구 장전2동 588-19(식물원 앞) • 평수: 40평 • 법당, 방 2, 주방, 욕실,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700만원 <p>051)516-3374 011)598-8673</p>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구시 동구 진인동 (앞가터위) • 건물(조립식 2층): 법당 13평, 요사채 40평 • 대지: 513평 • 특징: 산세가 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조용한 곳 <p>011)807-2355 053)983-3889</p>	<h3>사찰수원원양도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동구 송정동 마정마을(팔공산 파계사 西3km)동대구역 20분 2차선 포장도, 주변 30-40대 주차가능 • 토지: 대지 210, 채소밭 110, 합 320 • 건물: 목조건 7기, 철근 콘크리트 2, 2002년 11월 준공 1층 - 객실방 3칸, 큰거실, 중앙계단실, 동침실, 대실, 주방, 부엌, 욕실, 보일러실(심야전기, 기름보일러 겸용) • 2층 - 법당, 수련실, 복도, 주지실 방 2칸, 거실, 욕실 • 특징: 요산요수, 수려한 자연환경, 앞세시냇물, 뒤는 竹林명풍, 학덕인남향, 한쪽의 동양화. • 가액: 현장답사후 결정(개인사정상 부득양도) <p>053)983-9933 / 016-875-9833</p>